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성공 개최 토대

한국, ICN 부회장 배출하며 이사국 입성

한국이 국제간호협의회(ICN) 제3부회장을 배출하며 이사국으로 입성하는 폐거를 이뤄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ICN 이사국으로서 세계간호무대의 중심에 서며 다시 한 번 한국 간호의 위상을 드높였다.

ICN은 2017 대표자회의(CNR)를 5월 25~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어 주요사업 및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4년간 ICN을 이끌어갈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선거결과 신임 회장으로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아일랜드) 전 ICN 제3부회장이 선출됐다.

신임 제3부회장으로 신성례 대한간호협회 국제특별위원회(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이 뽑혔으며, 6월 1일 열린 첫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 간호사가 ICN 임원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김모임 전 대한간호협회장(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이 뽑혔으며, 6월 1일 열린 첫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 간호사가 ICN 임원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김모임 전 대한간호협회장(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이 뽑혔으며, 6월 1일 열린 첫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신임 임원들은 5월 31일 오후 열린 ICN 학술대회 폐회식에서 세계 간호사들에게 소개됐다. 신성례 제3부회장은 한국 차림으로 입장했으며, 무대 위에 마련된 새 임원 자리에 앉아 폐회식을 지켜봤다.

대한간호협회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를 최대 규모의 수준 높은 대회로 성공적으로 개최해낸으로써 세계 간호의 모범과 비전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앞으로 4년간 국제간호협의회(ICN)를 이끌어갈 새 임원진이 선출됐다. 한국은 제3부회장을 배출하며 이사국으로 입성하는 폐거를 이뤘다. 아네트 케네디 회장(아일랜드·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신성례 제3부회장(한국·앞줄 오른쪽에서 둘째) 등 새 임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세계 간호무대 중심에 우뚝 선 코리아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 드높인 쾌거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이번에 ICN 이사국으로 입성함으로써 대한간호협회는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 간호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한국 간호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게 됐다.

한국 간호사들은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던 그 감동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면서 "ICN 임원을 배출하게 돼 기쁘고 흐뭇하다"며 축하했다. 또한 "앞으로 ICN 이사국으로서 자금심과 책임감을 갖고 인류

의 건강과 세계 간호를 위해 한마음으로 더욱 정진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은 "한국이 ICN 이사국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2015년에 대한간호협회가 보여줬던 역동적인 리더십과 창조적인 에너지가 앞으로 ICN과 세계 간호가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원선거 기사 2면)
정규숙 기자 ksung@koreanurse.or.kr

ICN 스페인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 특집기사 : 2~5면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앙 BB·CC 크림을

'한국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나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